



# 세계타임조

☎대표전화: 1661-8385 www.thesegye.com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제 3245호〉

## 檢, '서해피격 은폐' 文정부 안보라인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코스피가 급락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에, 코스닥지수는 24.68포인트(2.66%) 하락한 901.89에 장을 마감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

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 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 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

### 서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박지원,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 서훈,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

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 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 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 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 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

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지휘 감독 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유청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 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 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 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 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 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 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 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장성 기자

#### 金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문제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李대통령 지시 후속조치···金총리 "엄중인식"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

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 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 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 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 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 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 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 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 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채봉 기자

#### AI 거품 우려에 '검은 수요일'…주가·원화 동반 급락

#### 코스피 장 중 3,900선 무너지고 환율 1,450원 터치

5일 인공지능(AI) 업종 고평가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서 국내 주가지수와 원화 가치도 일제 히 하락했다.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터치하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17.32포인 트(2.85%) 내린 4,004.42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1.61%) 내린 4,055.47로 출발해 4,000선을 내 준 뒤 낙폭을 키워 오전 10시 33분께 3,867.81까지 밀려났다. 이후 하락폭을 축소해서 종가 기준 4,000선은 회복했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하락폭은 정

부의 세제 개편안을 향한 실망감이 작용한 지난 8월 1일(126.03포인트)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연속 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2조5천186억원, 기관이 79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2조5천65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68포인트 (2.66%) 하락한 901.89에 장을 마치며 4 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오르며 장 중 1,450원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5.6원 높은 1,443.5원 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 28분께 1,450원을 찍었다.

주간 거래 종가와 장 중 고가 모두 지난 4월 11일(종가 1,449.9원, 고가 1,457.2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였 다.

이날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와 원화 투자 심 리가 위축됐다.

뉴욕증시는 간밤 AI 업종 과대평가 우려에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각각 전장보다 0.53%, 1.17%씩 내렸고, 기술주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04% 급락했다.

이송원 기자

